

'자작나무에게 말을 걸다'

한국화가 오병기 작가, 9번째 개인전... 오늘부터 전주 꽃심갤러리서

한국화가 오병기 작가(사진)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주 꽃심갤러리에서 아홉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은 자작나무를 주제로 한 테마전으로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에 앞서 오병기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수묵담채 및 수묵 채색 작품으로 자작나무의 고결하고 순수한 감성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오 작가는 "하늘로 뿌리내린 추운 겨울나무는 새하얀 솜이불을 입은 듯 새색시 살결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굳게 서 있는 자작나무에 매료됐다"며 "산자락마다 가득했던 단풍들의 요란함도 잦아들 때 비로서 숲의 고요속에 제 모습을 드러내는 자작나무가 있다"라며 자작나무를 그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작품에서는 자작나무를 통해 순백의 여백미와 간결미를 작품에 담으며 노력한 작가의 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는 "북풍한설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



오병기작 '그리움'

낸 자작나무의 모습에서 현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작가는 현재 개인전 9회, 아트페어 4회 및 초대전 단체전 300여 회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한국미술협회이사: 전주미술협회지부장, 온고을미술대전 대회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예총공로상 전주예총공로상, 한국창작문화학상(시부문) 등을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제15회 대한민국 국악대제 비대면 행사 개최

개제·초헌례·축문낭독·아헌례
중헌례·분향·묘역참배 진행

남원시 문봉읍의 국악의 성지에서는 지난 9일 제15회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사)민속국악진흥회(이사장 김익규) 주관으로 국악명인 명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성대한 분위기 속에 개최됐다.

국악대제는 대한민국의 국악 선인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명창 송홍록 선생을 비롯한 훌륭한 판소리 명창들과 명인들이 배출된 남원에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어 남원시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나, 개제, 초헌례, 축문낭독, 아헌례, 중헌례, 분향, 묘역참배 순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하지만 대제와 함께 예정되었던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국악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상황



남원시 문봉읍의 국악의 성지에서는 지난 9일, 제15회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사)민속국악진흥회 주관으로 국악 명인 명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성대한 분위기 속에 개최됐다.

악화로 인해 11월중으로 연기 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국악 꿈

나무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내 최초 몰입형 입체음향 전시 | 전주문화재단, 11월 3일까지 팔복예술공장서 'Wave The 팔복'·'AR 게임 배틀대회'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팔복동 산업시설의 과거의 기억과 현재를 재조명하기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팔복산 업유산을 활용한 실감형 전시 'Wave The 팔복'과 전시기념 이벤트로 'AR 게임 포켓몬' 배틀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되는 'Wave The 팔복' 전시는 국내 최초 몰입형 입체음향 전시로, 기존 미디어아트에서 볼 수 없던 영화적 상상력이 총동원된다. 팔복예술공장 B동 아파나무홀

전시장과 야외광장 일원에서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부 RECALL 기억의 소환은 과거 봉제공장 소녀와 동료들이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을 되살린다. 2부 REVERSE 산업역군의 부활에서는 사람과 기계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팔복동의 시간이 생생히 재현된다. 마지막 3부 WAVE 다시 새롭게는 팔복동에 새로운 변화와 빛을 따라 몰려드는 사람들과 물결치는 팔복동을 형상화한다. 또한 팔복예술공장 아파나

무광장에서는 빛과 소리로 빛어내는 환상의 사운드 라운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는 2021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공모사업 선정, (재)전주문화재단과 입체음향과 실감형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인 '스튜디오 비키' 공동 기획하여 추진되며 (재)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 후원한다.

관람은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주말은 오전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장은성기자

군산시, 둔율동성당 문화재적 가치 논의한다

군산시는 둔율동 성당(주임신부 김병희 요셉)의 국가 등록문화재 제677-2호(성전신축기 및 건축하기신청서) 등록에 따른 문화재적 가치 논의를 위해 '2021년도 제2회 둔율동성당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 둔율동 성당(국가 등록문화재 제677-2호)의 '성전신축기'와 '건축하기신청서'는 6.25전쟁 직후 신축한 성당의 계획수립과 착공·완공·건축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12월 31일에 국

가등록문화재 제677-2호로 등록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강임준 군산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군산지역 공소 현황, 둔율동성당 신축과정, 천주교회 초기대표 신자의 군산에서의 삶, 둔율동성당과 지역민들과의 관계를 주제로 발제와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군산=남현봉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제15회 도서관 문화축전' 개최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희)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간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참여하는 '제15회 도서관 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축전은 '도서관 내 안의 특별함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참여마당·테마마당·독서마당·공연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상황에서 비

대면 행사를 대폭 늘려 도내 교육청 소속 18개 도서관에서 추천한 가족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가족 독서클럽과 SNS를 활용한 우리 동네 책 읽기 좋은 장소를 추천하는 '우리 동네, 책 나들이'를 특별히 운영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시간대별 참여 인원의 제한, 야외공간 활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테마마당, 독서마당, 공연마당 등을 준비했다.

/장은성기자

남원도예가, 대한민국미술대전서 수상

현대공예부문 박승미·배재현 작가 특선·임복실 작가 입선

남원시민도예대학 책임강사인 박승미 작가(특선), 배재현 작가(특선), 임복실 작가(입선)가 제4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현대공예부문에서 수상하여 우리나라 도예문화의 본고장인 남원의 자존심을 지켰다.

대한민국미술대전은 미술(구상·비구상), 현대공예부문, 전통공예부문, 디자인부문, 서예부문, 문인화부문의 6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작품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 예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으로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영광스런 자리이기도 하다.

남원은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가 '사쓰마야키'라는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든 심수관 가(家)의 본향이며, 남원의 도예가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남원 도예문화의 맥을 이어오다 1999년 남원시민도예대학의 설립으로 도자기 문화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로 10회를 맞는 온라인국제도예캠프는 '오늘이 오늘이소서'라는 주제로 조선 도공의 낮을 기리는 한편 남원 도자기의 뿌리를 찾고 남원의 도자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수상작 중 박승미 작가의 작품명은 '진또배기'로 70cmX30cmX105cm 크기의 조형토로 코일링(coiling) 기법을 이용하여 공정의 이미지를 지닌 동그라미 모양을 이어붙이면서 쌓아 올렸으며, 상단부에는 맑고 밝게 지저귀는 새들의 모습을 모델링(modelling) 기법으로 만들어 올려 진또배기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환원성을 통해 부드럽게 완성했다.



수상작 박승미 작가 '진또배기'

박 작가는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지나는 모든 이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품을 제작했다고 소감에서 밝혔으며, '진또배기'는 마을의 평온을 기원하는 순대의 방언이다.

한편 남원의 도예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김광길 작가(전 서남대 교수)는 "3명의 현대공예부문 수상 소식은 코로나 19로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수상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도자기의 본향 남원에서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소식이 전해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31회 동리대상에 박양덕 명창 선정

대한민국 판소리 최고 권위의 '동리대상'에 박양덕 명창이 선정됐다.

지난 3일 제31회 동리대상 심사위원회는 판소리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박양덕명창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6일 동리국악당에서 시상식을 연다.

박양덕 명창은 1947년 전남 고흥군에서 태어났다. 11세때 박복산에게 흥보가를 배우고, 18세때 김소희(1917-1995, 고창출신)에게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를 배웠다.

이후 정광수, 박초월에게 수궁가를 배우고 박봉술에게 적벽가, 수궁가를 배웠다. 성우형에게 심청가를 남해성에게 수궁가를 이수 받았다.

제17회 남원춘향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87년 수궁가 완창 발표회를 시작으로 흥보가, 심청가 완창을 12차례나 했다.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남원시립국악단 단장을 역임했다. 한국판소리보존회 남원지부장에 재직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2003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로 인정됐다.

동리대상은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이만우)가 주관하여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사람(법인 포함)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박양덕 명창과 제자들이 꾸미는 판소리 한마당 공연도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작업복
단체복

여성기업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명찰, 로고
각종 인쇄

판촉물
기념품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